+입법정보

계간 세종 의정

| 제5대 의회 개원 특집호 |

2026년
통권 제49호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SEJONG CITY
COUNCIL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목차

+입법정보

계간 세종 의정

| 제5대 의회 개원 특집호 |

발행일 2026년 9월 17일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행인 안신일 의장
제작부서 홍보기획팀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계간 『세종의정』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04 **의장단 당선인사**

08 **축전**

13 **특별기획**

1.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원구성부터 개원까지
2.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들의 다짐
3. 민생한마디
4. 숫자로 보는 제5대 세종시의회

26 **의정포커스**

28 **환영논평**

30 **결의안**

31 **주요안건 처리현황**

36 **의회인터뷰**

- 안신일 의장
- 유인호 제1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
- 김학서 제2부의장









표지 이야기

이번 계간『세종의정』표지는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의 순간들이 장식했다. 시작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설렘이라는 기대감으로 완벽하게 희석한다. 그렇기에 고난과 역경이 불가피한 여정일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마음에 새기고 대담하게 발을 뗀다. 예측되는 어려움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일 용기를 가진다. 시작이 주는 힘 덕분이다. 통권 제49호가 담아낸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시작'을 함께 열어보자.

48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소식**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경제문화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63 **5분 자유발언**

68 **청렴문답**

70 **세종에서 놀자, 쉬자**

72 **의정주요뉴스**

76 **입법정보**
- Ⅰ 생활법령
- Ⅱ 주요입법동향
- Ⅲ 법령해석사례
- Ⅳ 최근시행법령
- Ⅴ 타 지자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94 **의회홍보채널 안내**









제5대 의회 전반기
의장 당선인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시민의 기대와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더 큰 책임을 지라는 부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장의 자리를 먼저 책임지고 뒤에서 받쳐드리는 자리로 여기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의회로 향하는 외풍을 막아내는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그 시작은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잘 섬기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자세로, 지혜롭고 겸손한 의장이 되겠습니다.

선수와 지역구는 달라도 모든 의원님이 곧 의회의 힘입니다. 초선 의원님들의 패기와 새로운 시선, 재선·다선 의원님들의 경험과 경륜이 고르게 어우러져 의회의 저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의원님이든 역량을 충분히 펼치고, 시민께 드린 약속을 실현하실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저는 어느 목소리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고,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도 지혜를 모아 시민을 위한 최선의 답을 찾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건강한 긴장과 협력 속에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세종의 미래를 준비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4년은 세종시에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여정은 더욱 구체화될 것이고, 안정적인 자족도시로의 발전을 비롯한 굵직한 과제들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5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날, 시민들께서 “세종시의회가 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해 주실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에는 제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와 기쁨은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통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의원님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의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세종시의회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안 신 일**

제5대 의회 전반기
제1부의장 당선인사

제1부의장 유 인 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부의장으로 선출된 유인호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부의장이라는 중책으로 이끌어주시고,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주는 책임의 무게를 엄중히 느끼며, 오직 시민과 의회를 위해 온몸을 다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신도심과 원도심이 함께 고르게 성장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의회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여 하나의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오직 '시민 중심'과 '민생 우선'이라는 가치 아래 움직이겠습니다. 갈등보다는 대화를, 대립보다는 협력을 최우선으로 삼아 상생의 정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 내 '소통의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받들어 화합을 도모하고, 집행부와는 견제와 협력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부지런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늘 처음 마음 그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대 의회 전반기
제2부의장 당선인사

제2부의장 김 학 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의회 제2부의장이라는 귀한 자리를 맡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마음에 새기며, 낮은 자세로 시민 곁에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저는 어느 특정 정당의 이름보다, 세종시민 모두를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는 여야를 떠나 시민의 삶을 살피고 더 나은 세종을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화합과 소통을 이끄는 부의장으로서, 동료 의원님들과 여야를 넘어 협치의 정신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립이 아닌 더 나은 결론을 위한 소통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하여, 의회와 시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하나하나를 의회 안에 성실히 전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협치와 상생의 세종시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을) 국회의원 강준현입니다.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의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새로운 의회 출범을 위해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5대 세종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담아내는 열린 의회이자,
세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시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성과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강 준 현**

세종시(갑)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안신일 의장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제5대 세종시의회의 힘찬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의 4년은 단순한 임기가 아닙니다. 세종의 미래 100년을 결정할 시간입니다.
행정수도 완성,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 기반 확충,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도시로의 성장은
앞으로 4년 안에 분명한 방향을 세워야 할 과제입니다.
저는 의회를 '기획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그치는 곳이 아닙니다.
조례와 예산을 통해 세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감시와 견제 역시 의회가 정한 방향대로 집행부가 제대로 일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의회의 결정은 무겁습니다.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회의와 토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더 나은 결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의 한계를 넘어 시민 전체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세종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입니다. 세종시의회 역시 지방의회의 모범이 돼야 합니다.
시민 속에서 답을 찾고, 대화와 타협으로 세종의 100년을 설계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행정수도 세종완성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5대 세종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회의원 **김 종 민**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 이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생활 속 민주주의가 자리잡는데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특히,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35여 년간 지방의회는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지만,
지방정부가 지향하는 지역주민이 지방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성숙한 지방자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뜻을 가장 가까이에서 담아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만큼
지방의회가 한발 더 앞장서 지역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단체장과 함께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현안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의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개원을 축하드리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 호 중**

존경하는 안신일 의장님과 세종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 조상호입니다.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의 신뢰와 기대 속에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임기 동안 시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제4대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오늘은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저는 세종시 출범 이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세종시의 성장과 발전 과정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무거운 책임을 안고 세종시정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신뢰에 걸맞은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새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세종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국토 대전환의 핵심과제입니다. 이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종시는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국가균형성장의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함께 가야 하는 4년은 이러한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광역교통망 확충,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 신도심과 읍·면지역이 더불어 성장하는 균형발전 등 해결해야 할 과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대변하는 의회와 정책을 책임 있게 실행하는 집행부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목표는 같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종,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종, 기업과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자족도시를 만들고 국가균형성장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반드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시민의 신뢰와 기대 속에 출범하는 제5대 의회가 더 성숙한 지방자치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세종시의 발전을 이끌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 또한 視民如傷(시민여상)을 마음속에 새기며
늘 시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세종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조 상 호**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강미애입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신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을 세종교육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시의회는 세종시 발전을 이끄는 막중한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시는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라 행정수도로서, 교육도시로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도시입니다.
출범 당시 1만 2천여 명이었던 학생 수는 6만 6천 명이 되었고, 교원은 5천 2백 명, 학교 수도 173개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세종교육이 성장하는데 시의회가 큰 역할을 했고,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5대 세종시의회 출범과 함께, 세종교육도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세종교육은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이라는 비전 아래 '탄탄한 실력, 안전한 학교, 꿈을 이루는 미래'의 지표를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실력은 탄탄하게, 학교는 더욱 안전하게, 그리고 미래를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세종교육은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획기적인 전환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세종교육이 만들어가는 길은 결코 교육가족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세종교육을 함께 이끌어가는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정책적 제언, 상생을 위한 대안 제시는 세종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감 취임사를 통해, 아이들의 오늘이 행복해야 내일을 꿈꿀 수 있고, 교사의 오늘이 보람되어야 교육의 내일이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할 때 교육은 완성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는 세종교육의 새로운 변화에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세종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교육도시, 대한민국 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육 때문에 떠나는 세종이 아니라, 교육 때문에 돌아오는 세종, 교육 때문에 머무는 세종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는 공약사업과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경청하며, 교육청과 의회가
세종교육을 완성시키는 동반자라는 점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5대 세종시의회의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안신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세종시교육감 **강 미 애**

SPECIAL FEATURE

특별기획

1.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원구성부터 개원까지

2.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들의 다짐

3.
민생한마디

4.
숫자로 보는
제5대 세종시의회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원구성부터 개원까지





Special Feature

Sejong City Council



제5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 "여야 간 원만한 합의로 원구성 완료"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7월 1일 오후 2시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5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 의장과 부의장 2인을 선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의장단 선거를 실시한 결과 안신일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으며, 유인호 의원은 제1부의장, 김학서 의원은 제2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안신일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의장의 자리를 앞에 서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책임지는 자리로 여기겠다"며 "어려운 일에는 먼저 나서고, 성과와 기쁨은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통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의원님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의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세종시의회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인호 제1부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여야를 떠나 시민 중심, 민생 우선의 가치로 움직이겠다"며 "특히 의회 내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에 충실하며 의원들 간 화합을 도모하고, 집행부와는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이루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김학서 제2부의장 또한 "정당의 이름보다 세종시민 모두를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동료 의원들과 여야를 넘어 협치의 정신으로 함께하고, 서







로 다른 생각과 입장이 있더라도 대립이 아닌 더 나은 결론을 위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의회는 7월 2일과 3일 양일간 제107회 임시회 제2,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처리하며 여야 간 원만한 합의로 제5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

앞서 2일 세종시의회는 상임위원장 선거를 거쳐 ▲김재형 행정복지위원장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 ▲이순열 도시환경위원장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을 선출했다.

세종시의회는 4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뒤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통해 부위원장을 호선하며 2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3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김현미 의원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함께 처리했다. 이후 특별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란희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박범종 위원장을 각각 선출하며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다.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39만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정 여정 출발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7월 3일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새 슬로건 아래 개원식을 열고 39만 세종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정 여정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개원식은 제5대 의회의 힘찬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의 뜻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였다.

안신일 의장을 비롯한 21명(지역구 18, 비례대표 3)의 제5대 시의원들은 앞으로 시민의 삶과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합리적인 대

안 제시를 통해 세종시 발전에 기여하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안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2030년 세종 완성의 해를 앞두고 제5대 의회가 그 여정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행정수도 완성의 마침표를 찍고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협력과 균형 발전 그리고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조치원읍 충령탑 참배를 통한 순국선열 추모를 시작으로, 본회의장에서 의원 선서 및 윤리강령 낭독, 기념식수, 개원 축하연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조상호 세종시장, 강미애 교육감, 김종민 국회의원 등 내외 귀빈 100여 명이 참석해 의회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특히, 개원식 직후 의회 정문 앞에서는 지역구 시의원 18명이 각 읍면동에서 직접 가져온 흙을 모으는 ‘합토(合土)’ 의식과 비례대표 의원 3명이 금남면 초정약수, 한솔동 참샘약수, 전의면 전의초수 등 3개 약수로 물을 주는 ‘합수(合水)’ 의식이 이어졌다. 동참한 참석자들은 세종시 전체의 화합과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아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의식에 참여했다.

제5대 세종시의회는 앞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의정 활동에 전력을 다해 매진할 예정이다.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들의 다짐



정연희

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조치원읍

**읍민들 소리를 잘 담아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성규

제2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조치원읍

**새 변화의 시기,
지역 발전을 바라는
조치원 주민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김동빈

제3선거구 / 국민의힘
부강면, 금남면, 대평동

**일잘하는 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민원해결사 김동빈이
되겠습니다.**



노종용

제4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연기면, 연동면, 해밀동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마음 잊지 않고
오직 시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학서

제5선거구 / 국민의힘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믿음과 성원에 감사합니다.
주민 행복과 지역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안신일

제6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장군면, 한솔동

**더욱 겸손하고 지혜롭게,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더욱 절실하게
달리겠습니다.**



이순열

제7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도담동

**주민들과 함께
더 큰 도담을
시민들과 더불어
더 나은 세종시를
만들겠습니다.**



김효숙

제8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어진동, 나성동

**정치를 시작했던
첫마음 잊지 않고
다시 4년을 세종시를 위해
온전하게 쓰겠다고
다짐합니다.**



박병남

제9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아름동

**주민 바로 곁에서 소통하며,
발로 뛰는 정책으로
살기 좋은 아름동을
만들겠습니다.**



박범종

제10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종촌동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한 의정활동과
일의 성과로 보답하며
행복한 종촌과
더 나은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이재준

제1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고운동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에
깊이 감사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재형

제12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고운동

**초심으로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며,
소통과 성과로
세종시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유인호

제13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보람동

**다시 맡겨주신 4년,
더 큰 책임과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현미

제14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소담동

**주민과 함께 만든 승리,
더 큰 책임으로
갚겠습니다.**



김창연

제15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반곡동

**거만·자만·교만하지 않고,
가장 성실하고
일 잘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김동호

제16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집현동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당선의 기쁨보다
책임의 무게를
새기겠습니다.**



손인수

제17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새롬동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새롬동의 변화를
성과로 만드는
진짜 일꾼이 되겠습니다.**



박란희

제18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다정동

**더 넓게 소통하고,
재선의 든든함으로
더 좋은 다정의 내일을 위해
뛰겠습니다!**



김명숙

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세종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강해정

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현장전문가로,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강해정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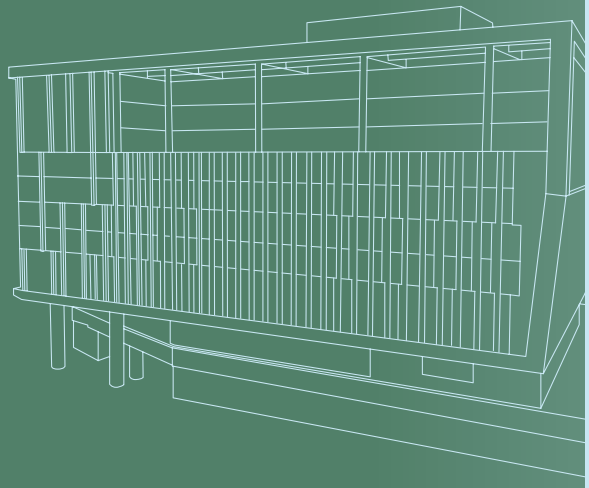
곽효정

비례대표 / 국민의힘

**세종시민께서 주신 기회를
무겁게 여기며,
신뢰받는 의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생 한마디

새롭게 출발하는 제5대 세종시의회,
더 나은 세종과 시민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각계각층 시민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전합니다.



세종시 주민자치연합회장 **황승원**



먼저 존경하는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주민자치회가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 주권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자치 조직과 권한도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 각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의회와 주민자치기관의 정기적인 정책회의, 그리고 시민주권회의 정례화를 통해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육인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대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도 시의회와 함께 더 살기좋은 세종, 더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5대 세종시의회의 힘찬 출발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 **방순환**

제5대 세종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세종시 시의원님들은 각 지역의 대표로서 선출되었는데요. 4대와 5대 차이점을 느낄 수 있게 각 지역만 챙기지 않고 세종시 전체를 아우르는 시의회 의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의회 의정모니터인 만큼 예산이나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시의원님들도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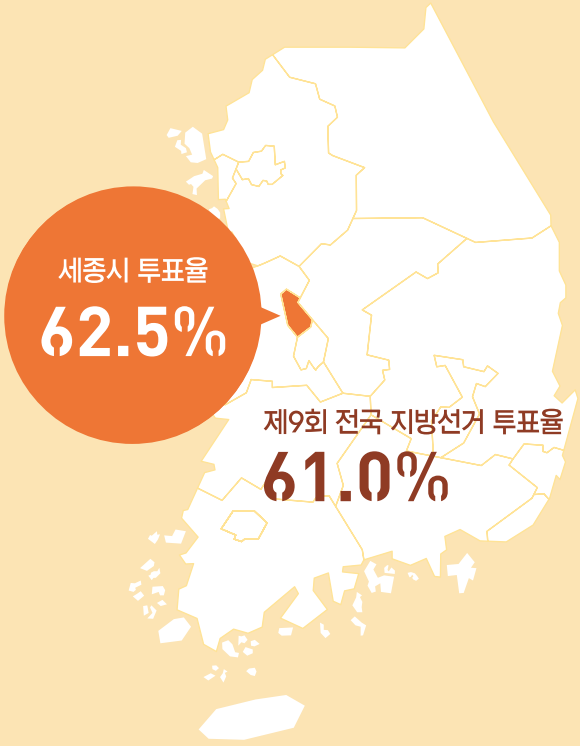


숫자로 보는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6년 7월 3일,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치열했던 선거의 순간부터 영광스러운 당선,
설렘 가득했던 의원 등록까지!
제5대 세종시의회의 시작을 수놓은 순간들을 숫자와 통계로 만나봅시다.



제9회 전국 지방선거 투표율





선거인 수
309,134



투표자 수
193,215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석분포



정 당	지역구	비례대표	총 의석수	비 율
더불어민주당	16	2	18	85.7%
국민의힘	2	1	3	14.3%



평균연령



52.0세

* 제4대 의회 대비 5.1세 증가

재선, 초선의원 비율



* 제4대 의회 대비 재선의원 비율 증가

여성, 남성의원 비율



남성

12명 57.1%





여성

9명 42.9%



의원연령대



Council Focus 01

제106회 임시회 개회… 8일간 회기 진행

제4대 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월 10일 제10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날 17일까지 8일간 회기를 이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순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친화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세종시의회는 이어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같은 달 17일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1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방안을 제언했으며, 이현정 의원이 민생 중심의 재정 정상화에 관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는 이어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는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5대 원 구성 후 첫 제108회 임시회 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7월 15일 오전 10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5대 의회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 회기를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김재형·김현미·박란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충청광역연합의회 연합의원 선임 ▲제109회 정례회 집회일 변경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세종시의회는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시와 교육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도 함께 청취했다.

안신일 의장은 개회사에서 "새롭게 출범한 집행부와 의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며 "남은 4년 중 전반기 의회에 주어진 2년이야말로 골든타임인 만큼,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착공을 위해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중앙 정치권, 전국 의회와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3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김현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박병남 의원이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3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5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다.

이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의장제의 안건 6건도 함께 처리했다.

아울러 이날 세종시의회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했다.

환영논평 1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 표명, 전폭적 환영!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추진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하여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11일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고 전하며 정부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하겠다는 마음으로 총력을 다할 것을 표명했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을 들어 ‘대한민국 고질병을 고치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뜻을 내비친 데에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야기된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핵심 발로로 행정수도 완성을 꼽은 것이다.

또한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한 법 제도의 뒷받침도 지속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제도적 완성의 길로 접어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토의 중심인 세종과 충청이 새로운 균형발전 시대를 이끌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뜻에 적극적으로 찬동한다. 더불어 세종을 넘어 충청권이 새로운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 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동행하고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낸다.

앞으로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가속화와 관련 인프라 정비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의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모든 역량과 지혜를 결집하여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결실의 실현을 위해 힘쓸 것을 굳게 다짐한다.

환영논평 2

행정수도 완성 앞당길 중앙행정기관 세종 추가 이전, 전폭적 환영!

9월 3일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추진을 발표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다.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전폭적인 환영과 기대로 맞이한다.

오늘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관련 간담회'를 통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의 세종행을 발표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추진을 향한 국가적 의지가 더욱 공고해졌다.

세종시에는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국가 주요 정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결집해 있으나,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어 부처 간 업무 연계와 협업이 원활하지 못해 비효율적 행정이 지속됐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 발표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해 정부 부처 간의 행정 비효율을 해소함과 더불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는 시점을 앞당길 중차대한 전환점이다.

특히 법무부는 법무행정과 검찰, 인권, 교정, 범죄예방, 출입국·이민 등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권익에 폭넓게 맞닿아 있는 핵심 중앙행정기관이다.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무부가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면 행정수도로서 세종이 수행하는 국정 중추 기능의 범위 또한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성평등가족부의 이전 역시 각별하다. 현재 국립여성사박물관의 세종 건립이 가시화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세종 이전도 거론되고 있다. 앞으로 성평



등가족부를 기점으로 한 지역에 연계 기관들이 집적한다면 성평등과 가족, 청소년 복지를 아울러 정책의 기획부터 조정,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완결성을 높이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촉구해 왔다. 2018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2025년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 또한 발의, 채택하며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과 이를 향한 의지를 꾸준히 정부와 국회에 전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단순히 몇 개의 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사실을 넘어 정부기능이 더욱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국정 효율을 증대하여 국가의 행정력을 강화할 동력이다. 아울러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가능케 할 상징으로 거듭나 행정수도 건설의 취지를 이룩할 발로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뜻을 모아 세종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자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으로 온전히 자리매김하는 그날까지 모든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7월 30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병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세종시 재정특례 적용 기한이 2026년 말 종료될 것에 대비하여 재정지원 공백을 방지하고, 국회와 정부가 세종시의 행정구조와 재정수요를 반영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는 별도의 기초자치단체 없이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나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체계는 광역과 기초가 분리된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돼 세종시가 실제로 수행하는 기초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결의안은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가가 조성한 공공시설이 지속적으로 이관되며 세종시의 재정부담도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국회에는 재정특례 강화와 단층제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행정수도 지위에 상응하는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행정수도법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의결과 후속조치 마련 ▲행정수도 지위와 국가기능 수행에 상응하는 재정지원 근거의 법제화 ▲단층제 구조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반영한 재정지원 체계와 시행 방안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박병남 의원은 “세종시의 실제 행정구조와 재정수요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행정수도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시민행정서비스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기관에 이송했다.

제106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용어안내 | • 운영위: 의회운영위원회 • 교안위: 교육안전위원회 • 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 [2026. 6. 10.]

연번	의안번호	발의(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의결결과
1	4978	의장	제10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2	4979	의장	제10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2026. 6. 17.]

항	의안번호	발의(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1	4971	최원석 의원 외 3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	4969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	4970	교육감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4	4980	의장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1차 본회의 [2026. 7. 1.]

연번	소 관	의안번호	발의(제출)자	안 건 명	본회의 의결결과
1	본회의	4981	의장	제10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원안가결
2	본회의	4982	의장	제10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2026. 7. 2.]

연번	소 관	의안번호	발의(제출)자	안 건 명	본회의 의결결과
1	본회의	4983	의장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2026. 7. 3.]

연번	소 관	의안번호	발의(제출)자	안 건 명	본회의 의결결과
1	본회의	4984	의장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2	본회의	4985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3	본회의	4986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제108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용어 안내
- 운영위: 의회운영위원회
- 행복위: 행정복지위원회
- 경문위: 경제문화위원회
- 도환위: 도시환경위원회
- 교안위: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본회의 [2026. 7. 15.]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의결결과
1	5026	의장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2	5027	의장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3	5024	곽효정 의원 외 7명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4	5025	의장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5	5029	의장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제2차 본회의 [2026. 7. 30.]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의결 결과
1	4989	시장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	4990	시장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	4991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	4992	시장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	4993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6	4994	시장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	4995	시장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8	4996	시장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의결 결과
9	4997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0	4998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1	4999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2	5000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3	5001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4	5002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5	5003	시장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6	5004	시장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7	5005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8	5023	안신일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9	5031	박병남 의원 외 6명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0	5006	시장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경문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1	5007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경문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2	5008	시장	세종라이콘타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경문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3	5009	시장	전의면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문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4	5010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문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5	4987	시장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26	4988	시장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농업발전, 중소기업육성, 옥외광고발전, 통합재정안정화, 고향사랑기금)	예결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7	5030	위원장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운영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의결 결과
28	5022	김현미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운영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9	5028	박란희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운영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0	5011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환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1	5012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환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2	5013	시장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환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3	5014	시장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환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4	5015	시장	슬레이트 처리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환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5	5016	시장	세종새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환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6	5017	시장	제1,2,3,5,12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환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7	5018	시장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환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8	5019	시장	숲가꾸기사업 대행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도환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9	5020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0	5021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1	5036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42	5037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43	5032	의장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원(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44	5033	의장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원(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45	5034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이사장 및 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46	5035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임원)	본회의	-	원안가결

의장은 ‘겸손과 책임의 자리’, 지혜롭게 길 찾아갈 것

안신일 의장



지난 7월 1일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반기를 이끌 의장단이 선출된 본회의장에는
새로움에 대한 설렘과 변화를 향한 포부가 공존했다.
이날 제5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안신일 의원은
“의장직을 앞에 서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책임지는 자리로 여기겠다”고 전했다.
직책을 가진 자는 권력이 아닌 겸손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이 안 의장의 첫 번째 다짐이었다.
책임과 겸손으로 지혜롭게 의정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싶다는 안 의장,
개원 후 첫 번째로 맞이한 가을 중턱에서 안신일 의장의 의정 로드맵을 청해 들었다.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소감은?

먼저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세종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2012년 첫마을에 처음 입주하던 때부터 마을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한 마을 주민으로 시작한 그 걸음이 마을의 한계를 넘어 의회로 이어졌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만드는 이 자리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남다르다. 저는 이번 선택을 '편안히 자리에 앉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듣고, 현장으로 더 자주 찾아가 부지런히 일하라는 당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민이 계신 곳이 곧 의회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믿는다. 권한 앞에서는 겸손하고, 책임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으며, 어려운 현안 앞에서는 지혜롭게 길을 찾는 의장이 되겠다. 그것이 제가 만들고 싶은 의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집행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갈 계획인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협력하되 할 말은 하는 의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협력과 견제, 이 둘을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한 몸으로 보고 있다.

먼저 협력과 관련해서,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시민의 더 나은 삶'에 있다. 신도심과 원도심의 고른 발전, 읍면 지역의 전통과 활력, 교육과 문화와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까지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적절히 균형을 맞추며 긴밀한 협력으로 이 모든 민생 현안을 해결하려 한다. 갈등을 위한 대립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협치로, 함께 대안을 찾아가겠다.

다만 협력이 곧 견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건강한 견제와 투명한 감시가 살아있을 때, 집행부도 시민도 비로소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예산과 정책을 철저히 따지고, 원칙과 상식에 어긋남이 없는지 끝까지 살피겠다. 시민을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원칙 앞에서는 누구보다 엄정한 감시자가 되는 것. 그 균형을 끝까지 지키겠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시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세종시의 존재 이유이자 정체성은 결국 '행정수도'다. 국회세종의사당 이전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은 그 완성을 향한 구체적인 이정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준비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지난 4대 의회부터 다듬어 온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5대 의회 시작과 함께 첫 임시회에서 발의했다. 도시의 그릇을 키우는 일과, 그 안에서 세종의 청년과 인재가 함께 일자리를 얻고 성장하는 일을 동시에 챙기겠다는 뜻이다.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해 오는 것으로 행정수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 기능에 걸맞은 제도와 인프라, 그리고 시민의 삶이 함께 채워져야 진짜 완성이라고 생각한다. 2030년 세종시 개발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도 함께 완성될 수 있도록 시민과 손잡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세종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의회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의장을 맡자마자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세종시 재정이 어렵다"는 말이었다. 실제로 도시는 빠르게 성장하는데 세수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고,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교부세마저 불합리한 배분 구조 속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동료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아 시청·교육청과 함께 손잡고 풀어갈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챙기겠다. 동시에 보통교부세 배분 방식을 합리적으로 바로잡아 달라고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기업 유치 등 스스로 설 수 있는 세수 기반을 넓히는 일에도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

당장 시급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본다. 위로의 말보다 손에 잡히는 대책이 필요한 때다. 여민전 캐시백 예산 등 가용예산이 부족해 쉽지 않겠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확보해 상가마다, 마을마다 다시 활기가 돌도록 의회의 지혜를 모으겠다. 받는 재정에 기대는 도시가 아니라, 스스로 벌어 시민에게 돌려주는 자족도시 세종을 만드는 첫걸음을 전반기에 분명히 떼겠다.

전반기 의회 운영에서 가장 중점을 둘 분야는 무엇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가장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꼽고 싶다. 최근 삼성전기가 세종사업장에 8조 원을 투자해 고성능 패키지 기판의 글로벌 제조 허브로 육성하기로 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로, 우리 세종시가 산업 기반을 갖춘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뜻깊은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용수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협의, 기반시설 관련 조례와 예산 뒷받침에 힘을 보태 이 투자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대규모 투자가 지역 내 협력업체와 일자리로 이어지고,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

교육과 돌봄도 물론 놓치지 않겠다. 우리 아이들이 장차 행정수도 세종을 이끌어 갈 주역인 만큼,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돌봄 체계를 세종시의 가장 작은 단위인 '마을'에서부터 만들어가겠다. 저는 과거 첫마을학교장을 지내며 마을교육의 힘을 가까이서 경험한 바 있어, 그 경험을 이번 임기에 살려보고자 한다.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환경까지 갖춰진다면, 전반기가 끝날 무렵 시민들께서 삶 속에서 분명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시민들은 '일하는 의회'와 '소통하는 의회'를 기대하고 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기대에 모두 부응하려 한다. 먼저 일하는 의회는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과 정책을 철저히 따지고, 그 결과를 시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소통의 출발이라고 본다.

그 위에 현장으로 더 자주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 우리 시 곳곳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상공인과 청년, 어르신 등 계층별, 세대별 의견을 잘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

의회 소식과 활동 상황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창구와 방식 다양화에 더 신경 쓰겠다. 결국 시민이 계신 곳이 곧 의회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원칙을, 임기 내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가겠다.

세종 시민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임기를 마칠 때, "일 앞에서 겸손했고, 시민 앞에서 지혜로웠던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화려한 말보다 꾸준한 실천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삶의 향상이라는 두 길 위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온 사람으로 남고 싶다.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으로 채찍질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 걷는 의회가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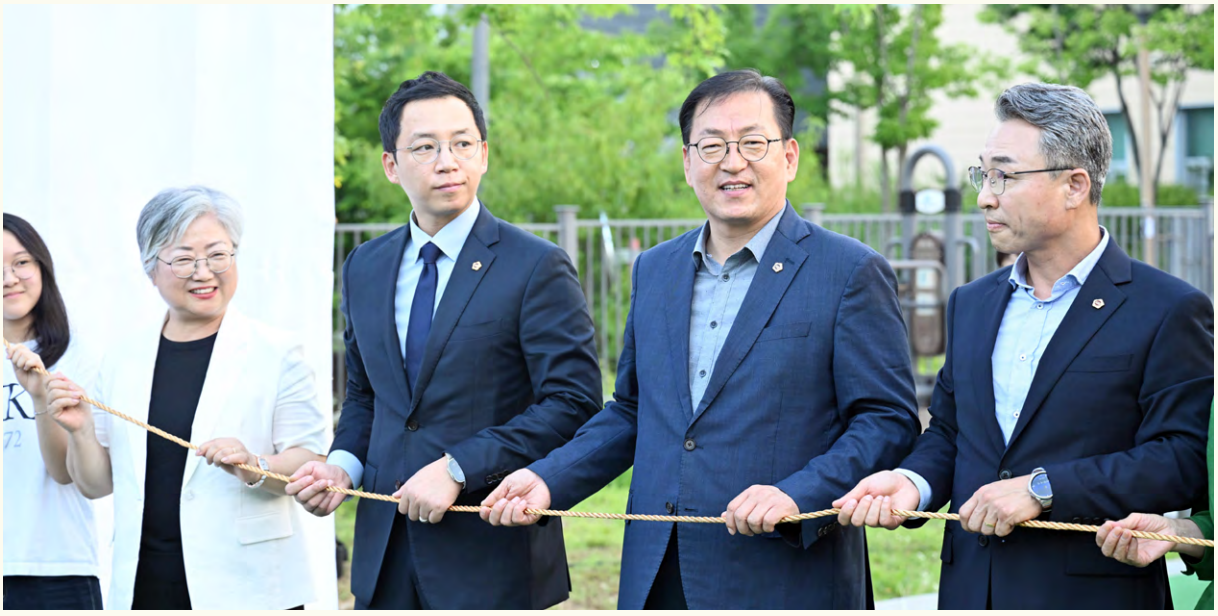


대화와 협력으로 '상생 정치' 실현되길…

유인호
제1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



'정치'의 의미는 역사가 길어질수록 다변화하며, 확장한다.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집단을 다스린다는 과거의 집약적 의미를 탈피해
현재는 사회 구성원 간에 생기는 대립을 해결하고
집단의 합의를 이끄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일컫는 말로 그 의미를 확장했기 때문이다.
소통과 협력, 공론의 장이 정치라는 하나의 물줄기로 수렴하는 시대,
지방 의회에서도 정치의 의미가 상생의 길 위에 올라야 할 시점이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제1부의장을 만나 지방정치가 '화합의 길'에 이르는 방법을 들어본다.



제5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제1부의장으로 취임하신 소감은?

먼저 부족한 저에게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보내주시며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 이 자리가 주는 책임감을 엄중히 느끼고 오직 시민과 의회를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갈등보다는 대화를, 대립보다는 협력을 최우선으로 하여 상생과 동행의 정치를 이끌고자 한다. 특히 의회 내 소통의 가교가 되어 화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것이다.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 시민의 사소한 불편함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발로 뛰겠다는 다짐 전해드린다.

제5대 세종시의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제4대 의회 때는 여소야대라는 구조로 인해 의회 내부에서 첨예한 상황이 자주 있었다. 당에 따라 다르기도 했고, 의원 개개인의 의정 방향성이나 가치에 따라 정책을 생각하는 지점들이 달랐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 그 와중에 초선 의원이 다수였고, 경험이 적다 보니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슬기롭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제5대 의회는 재적 의원 중 재선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이전 경험을 전문성으로 삼고 의회 내부에서 건강한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간다면 시민들의 생각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정책에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사안의 경중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괏값을 만들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시선을 가진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최대의 효과를 내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세종시의회가 나아가고 지향해야 할, 나아가 정치 자체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의회에서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하는 제1부의장, 교섭단체대표가 되고자 하는지?

초선의원님들 역시 준비된 의원이다. 하지만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다소 생경하다고 느끼실 테다. 의정활동이라는 분야에 처음으로 직면한 의원님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싶다.

되돌아보면 제가 초선일 시절 작은 동력만 있어도 큰 폭의 성장을 얻을 수 있었던 순간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 순간이 성장의 순간인지 판가름할 수 있는 노련함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만약 초선 의원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순간순간이 발전의 분수령이라고 독려할 수 있는 동료 의원이 되고 싶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를 맡은 만큼, 의회 내 의견의 협의를 이끌기 위해 양당의 중심에서 합의점을 이끄는 중재자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하고 싶다. 의원 개인이 발전하고, 의회라는 조직이 성장하여 안정화에 이를수록 그 혜택이 시민께 돌아간다고 믿는다. 그리고 혜택이 시민께 닿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논의의 장에서 의견은 다르더라도, 목적은 같은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섭단체대표의 역량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5대 의회가 적응기를 거쳐 정상화로 접어들 수 있게 돕고, 대내외적으로 의장님을 보좌하는 부의장이자, 교섭단체대표가 되고자 한다.

재선의원으로서 제4대 의회와 맥을 같이하는 의정 방향성이 있다면, 그리고 새롭게 추진코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현재 가장 급박한 현안이 시가 성장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사실 이 모든 게 돈 문제다. 관광산업의 육성, 기업의 유치, 국가기관의 이전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결국은 '자생 능력과 경쟁력'이라는 결론으로 도달한다. 그런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들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활성화, 상가공실 문제 등이 그것이다. 세종 전 지역에 상가공실이 극심해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이 설 자리도 없어지고 있다. 시의 재정 문제와 결부된 내수경제라는 면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소속 상임위원회가 교육안전위원회인 만큼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교육환경의 안전 문제, 교육 경쟁력 등은 계속해서 풀어가고 싶은 분야다. 더불어 지난 제4대 의회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인 자치경찰의 역할 강화를 위한 활동도 이어나가고자 한다. 자치경찰의 역할이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직결되기에 체계적으로 구축된다면 아주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집행부와의 관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 아닐까. 의회 본분이 결국은 집행부에 대한 엄격한 견제와 독주 감시다. 하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은 자제하고 싶다. 실질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급한 현안의 해결 등을 위해서 지금 의회와 집행부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책이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책임감, 그리고 각 기관과 소속 개개인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민들이 시정과 의정에 거는 기대가 크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 처한 현실에 대한 어려움 등이 표심으로 나타난 것이기에, 선출된 의원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막중하다. 여소야대라는 구조적 특성에서 벗어난 지금, 첨예한 갈등 상황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본다.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지도록 건강한 긴장 관계를 끊임없이 조성해 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시민분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의원이, 그리고 시의회가 되는 것이 제일 큰 목표라는 말씀드리고 싶다. 지난 4년 제4대 의회 활동을 통해서 시민분들과 소통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으나, 또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분들도 계실 것이다. 앞으로는 더욱더 현장에서 뛰는, 시민의 삶에 함께하는 유인호 의원이 되고자 한다.

아울러 집행부의 예산이 잘 수립되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꼼꼼하게 살펴보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건강한 견제 기구로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의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동반자로서 서로 협력하고 발전하겠다. 시민 여러분들도 시의 변화를 위해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끝으로 세종시의회가 역량을 결집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적 과제이고, 시대적 소명인 만큼 행정수도가 하루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의회와 함께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

지역 소멸, 마라톤의 호흡으로 해결해야…

김학서 제2부의장



마라톤의 승패는 출발점의 스퍼트가 아닌 모든 지점을 지날 수 있는 지구력에서 갈린다.
김학서 부의장은 세종시 지역 소멸의 해법을 '마라톤'의 호흡에 빗대어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도시가 만들어지고, 번창하고, 사람이 세대를 거쳐 성장하고 늙어갈 수 있는 지역을 꿈꾼다는 것.
긴 호흡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민이 정주하고 돈을 벌며
소비로 지역의 경제 고리를 유지하는 자족 기능의 안정화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일회성 관심이 아닌 '장기적 레이스'를 모두 통과할 수 있는 정책의 흐름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한 김학서 부의장의 정책론을 열어보자.

제5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제2부의장으로 취임하신 소감은?

먼저 제2부의장이라는 귀한 자리를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무서운 책임감을 마음에 새기며, 낮은 자세로 시민 곁에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어느 특정 정당의 이름보다, 세종 시민 모두를 위해 일하겠다는 다짐으로 부의장직에 임하겠다. 의회는 여야를 떠나 시민의 삶을 살피고 더 나은 세종을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회의 화합과 소통을 이끄는 부의장으로서, 여야의 경계를 허물고 협치의 정신으로 함께하겠다.





제5대 세종시의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종시는 지금 자족기능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다. 이 여파로 출산율 또한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은 유일하게 출산율이 증가하는 지역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 눈에 띄는 반등을 이루지 못했다. 인구는 40만을 목전에 두고 넘지는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신도심도 문제지만, 구도심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10년 이후라면 젊은이를 보기 힘들 정도로 노인인구만 남을 것이다. 새 인구의 유입 없이, 그저 감소만 남은 상황이다.

그 원인이 바로 자족기능 미비에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어느 도시든 좋은 일자리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 하지만 세종시 내부에는 소비 시스템을 돌릴 기업이 사실상 없다.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를 잡으려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모인 사람들은 출근할 때 필요한 구두와 옷을 사고, 월급을 받으면 외식을 하고, 공연을 보거나 여가를 누린다. 이런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가게에서 매출이 생기고, 시에 내는 세금이 많아진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법인세를 내고, 이런 과정에서 내부 경제의 순환이 가능케 되는 것이다.

자족 기능은 한해, 두 해 신경 써서는 잡히지 않는다. 빨라도 20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 장기적 계획에 앞서 시의 재정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초기 투자비용이 미래를 담보하는데, 돈이 없어서 투자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어서 확보해야 한다. 시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져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의회에서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하는 제2부의장이 되고자 하는지?



사실 정책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모인 곳이 바로 의회다. 이견들이 모여 새로운 합의점을 도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본질적인 성격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지형이었던 제4대 의회 때는 내부에서 소모적인 정쟁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다 보니 양측 모두 이득을 얻기보다는 정쟁으로 인한 피로만 남았다.
앞으로는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지는 의회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를 위해 소수 정당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내고 그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싶다. 더 나아가 시민들의 권익, 시의 발전을 위해 의회가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않은 거시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부의장으로서 심혈을 기울이려 한다.

재선의원으로서 제4대 의회와 맥을 같이하는 의정 방향성이 있다면, 그리고 새롭게 추진코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첫 번째는 자족기능 확충이고, 두 번째는 소멸을 막는 것이다. 사실 이 두 주제는 밀접하게 결부돼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평을 얻고 있지만, 문제는 그 아이들이 경제를 이끌 성인이 되었을 때도 세종에 남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청년 인구가 정주해야 자족 기능이 생긴다. 그리고 청년이 남아야 소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2000년대부터 예고된 지방소멸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숙제가 됐다. 세종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세종에서의 특화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명백하다. 출범 14년 차, 도시가 만들어지고 번창해야 할 시기임에도 소멸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짧은 시간 안에 이룰 수 있는 목표는 아니다. 적어도 20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변화가 보일 장기적인 목표다. 빨리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의 호흡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일회성 관심이 아닌 '장기적 레이스'를 모두 통과할 수 있는 정책의 호흡에 집중해야 한다. 순간 반짝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라도 길게 보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긴 호흡의 중턱에서 부의장으로서, 그리고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실천을 아끼지 않으려 한다.



집행부와의 관계, 어떻게 구축해나갈 것인지?

많은 의원이 느낄 것이지만, 행정과 현장 간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집행부와 의회는 함께 민원 해결이나 정책 수립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일이 많은데, 의원은 4년이지만 공무원은 최대 2년간만 같은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이런 업무 환경이 일의 지속성과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정책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다.

앞으로 2060년쯤이면 인구가 반절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다. 의회와 집행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세울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에 대한 분야적 전문성, 책임감 등을 발휘하고 합치하는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소통, 의견 교환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토론 중에도 표면적이고 상투적인 말 보다는 정말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심 어린 해결책들이 생산성 있게 화두에 올랐으면 한다.

행정 공무원은 맡은 직무에 충실하겠다는 마음으로, 선출직 공무원은 지역에 대한 책임감으로 시너지를 발휘하는 발전이 이뤄졌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의원은 의회와 시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이 있더라도, 대립이 아닌 더 나은 결론을 위한 소통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의회에 소중히 반영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는 말도 드리고 싶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김동빈 부위원장


김동호 위원


유인호 위원


이재준 위원


정연희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제5대 의정활동 첫걸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0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7월 3일, 제5대 의회 첫 회의를 열고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한편,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를 진행했다.

앞서 이날 개최된 제1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운영위원회는 이어서 열린 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동빈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제5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는 김현미 위원장(소담동, 더불어민주당)과 김동빈 부위원장(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을 비롯해 김동호 위원(집현동, 더불어민주당), 유인호 위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위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 정연희 위원(조치원읍, 더불어민주당)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소관 안건을 심사·조정하고 의회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세종시의원의 의정활동 토대를 다지는 등 의회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김현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다양한 고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균형 있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운영위, 제10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의회운영위원회는 7월 23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의회운영위원들은 ▲AI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 ▲입법·법률 자문운영 개선 ▲결원 해소 노력 ▲의회 홍보 체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서 국제종합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관내 경기장과 지원시설의 인프라 구축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회 준비 과정에서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미 위원장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경기대회는 세종, 대전, 충북,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개최하는 최초의 국제 메가 스포츠 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대회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원활한 건립을 지원하고,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각각 심사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반영해, 기정액보다 13만 7천원 감액한 129억 3,238만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7월 30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김현미 부위원장


강해정 위원


김명숙 위원


박범종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제5대 전반기 의정활동 본격화

행정복지위원회는 7월 2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제5대 의회 전반기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제5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는 김재형 위원장(고운동, 더불어민주당)과 김현미 부위원장(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박범종 위원(종촌동,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위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강해정 위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 등 세종시의 핵심 행정 부서는 물론, 시민의 일상 및 삶의 질과 직결된 보건복지국·보건소·시립도서관 등 총 12개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을 관할하게 된다.

행복위, 제108회 임시회 회의서 민선 5기 첫 주요업무 보고 받아

행정복지위원회는 제108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16일과 20일, 제1·2차 회의를 열어 민선 5기 집행부의 첫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소관 부서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과 당부를 이어갔다.





아울러 ▲핵테온 세종의 성과와 효과성 가시화 당부 ▲기술 용역과 정책연구 용역의 분리 관리 제안 ▲방과후 프로그램 사업의 교육청-학교 협력체계 구축 강조 ▲취약계층 복지그물망 구축 강화 ▲관내 업체와의 계약 체결 동참 강조 등 다양한 제안 및 논의를 거듭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 위원장은 "민선 5기 첫 업무보고인 만큼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과 제안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시정에 신속히 반영해 달라"며,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꼼꼼히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108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원안가결 18건, 수정가결 1건

행정복지위원회는 7월 21일 제10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시장 제출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보건복지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 12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총 19건으로 구성됐으며, 심사결과 18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가 정성평가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시 금고 지정 평가 배점을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완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108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제3, 4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약 800억원을 증액한 1조 2,356억 규모로 편성되어 제출됐다.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 증감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예비심사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김효숙 위원장



김동호 부위원장



김동빈 위원



김창연 위원



윤성규 위원



세종대평시장 폭염 및 집중호우 대비 현장방문

경제문화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이후 첫 현장방문으로 7월 21일 세종대평시장을 찾았다.

이번 현장방문은 연이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위원들은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과 폭염 저감 시설 설치 및 가동 여부, 배수시설 및 우수관 관리 상태 등을 살펴보며, 시민과 상인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

김효숙 위원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경제문화위원회 의정활동의 첫걸음으로 전통시장을 찾았다”며,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안전관리 실태와 상인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활력 있는 전통시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지역경제회복 위한 노력 당부

경제문화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제108회 임시회 제3차 및 제4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조례안과 동의안은 모두 원안가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편성비목을 조정해 수정가결했다.





앞서 21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처리된 주요 안건은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세종라이콘타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전의면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으로, 경제문화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어 22일까지 진행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예산의 필요성과 사업 효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유지하되 일부 편성비목을 조정해 수정가결했으며, 위원들은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의결된 예산과 사업들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당부하며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세종 조치원복숭아축제 성공 위해 적극 나섰다!

경제문화위원회는 7월 24일 개막한 세종 조치원복숭아축제를 찾아 행사장 운영 및 폭염 대비 안전관리 등을 살피며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위원회 구성 후 두 번째 현장방문으로 선택한 이번 세종 조치원복숭아축제 현장에서 위원들은 폭염 대비 시설물을 점검하고, 관광객 및 부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축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

김효숙 위원장은 “지난해에 비해 프로그램 구성이 더 다양해지고, 쿨링포그 및 무더위쉼터 설치 등 안전대책이 강화된 모습을 확인했다. 관계 부서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오늘 경제문화위원들이 살펴본 현장 실태와 관광객 및 참여자의 목소리가 내년 복숭아축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순열 위원장



정연희 부위원장



김학서 위원



박란희 위원



박병남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제5대 의정활동 힘찬 출발

도시환경위원회는 제107회 임시회 기간인 7월 2일, 제5대 의회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개최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 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5명의 상임위 위원 구성 또한 이뤄졌다. 같은 날 오후 열린 도시환경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함께 이끌어갈 부위원장으로 정연희 의원을 선출했다.

이로써 도시환경위원회는 이순열 위원장(도담동, 더불어민주당)과 정연희 부위원장(조치원읍,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김학서 위원(연서면·전의면·전동면·소정면, 국민의힘), 박란희 위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 박병남 위원(아름동, 더불어민주당) 등 의정활동을 이끌 총 5명의 위원들로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계획, 주택, 도로, 교통, 환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소관으로 하며,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주요 정책 및 사업 점검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협력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순열 위원장은 “도시환경위원회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현안을 다루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안건 심사 완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108회 임시회 기간인 7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제3·4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기타안건 심사'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 2건, 동의안 7건, 기타안건 1건 등 총 10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고, 보고 1건을 청취했다.

또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8억 1,120만 3천원 증액된 2,487억 3,328만 1천원,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27억 3,445만 3천원 증액된 4,864억 1,793만 9천원으로 각각 원안가결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같은 달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 기타안건 역시 3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도시환경위원회, 전반기 첫 현장방문 실시

도시환경위원회는 7월 6일 위원회 구성 이후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및 수자원 관리 현장을 찾았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순열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여 크린넷 집하장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며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먼저, 제2호 크린넷 집하장을 방문해 쓰레기 수송, 집하 및 탈취 설비의 작동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하수 처리 체계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요 현안 과제들을 면밀히 살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위원장


이재준 부위원장


곽효정 위원


노종용 위원


유인호 위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제5대 의정활동 개시

교육안전위원회는 7월 2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의정활동의 출발을 알렸다.

앞서 이날 오전 개최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인수 의원이 제5대 의회 전반기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재준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반기 교육안전위원회는 손인수 위원장(새롬동,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부위원장(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곽효정 위원(비례, 국민의힘), 노종용 위원(연기·연동면, 해밀동, 더불어민주당), 유인호 위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까지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민의 교육, 안전 분야와 관련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교육안전위원회는 7월 15일과 20일 2일간 제1, 2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의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특히, 이번 제5대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청 자치경찰위원회까지 담당하게 되어 교육과 안전 분야 관련 더욱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위원장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 안전과 교육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고 함께 나아가자”고 전했다.

2026년 세종시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교육안전위원회는 7월 21일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예비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의 ‘2026년~2030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 후,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에 제출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민안전실은 2026년 본예산 대비 19억 3,740만원(10.9%)이 증액된 197억 521만원 ▲소방본부는 26억 7,747만원(3.48%)이 증액된 797억 1,006만원 ▲자치경찰위원회는 1,469만원(0.55%)이 감액된 26억 4,994만원 규모로 편성·제출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와 간담회 개최

교육안전위원회는 8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 세종지부는 교육 관련 현안 및 제5대 교육감 공약 사업 등에 대한 건의 및 제안을 전달했으며,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전교조 세종지부 간부진 7명은 이번 간담회에서 ▲정서 위기 학생 지원 확대 ▲교권 보호 강화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 ▲교원 적정 정원 확보 ▲제5대 교육감 공약 사업 관련 의회 차원의 면밀한 검토 등을 요청하였고, 관련 토의가 진행되었다.

손인수 위원장은 “오늘 제안해 주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공감한다”며, “교육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숙의를 거친 후 집행부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란희 위원장


박병남 부위원장


곽효정 위원


김동빈 위원


김재형 위원


김현미 위원


노종용 위원


손인수 위원


윤성규 위원


정연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란희 위원장·박병남 부위원장 체제 구성 완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3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이 진행됐다. 위원들의 호선으로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으로, 박병남 의원(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곽효정 위원(비례, 국민의힘), 김동빈 위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 김재형 위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위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위원(연기·연동면·해밀동, 더불어민주당), 손인수 위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 윤성규 위원(조치원읍, 더불어민주당), 정연희 위원(조치원읍, 더불어민주당)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종합 심사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로, 시 재정 운용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08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세종시가 제출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829억원보다 2,102억원(10.09%) 증가한 2조 2,931억원 규모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입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실내수영장 경상적 위탁사업비 3천만원 등 세출예산안을 증액하는 한편,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서 같은 금액을 감액해 수정가결했다.

위원회는 민생 안정과 도시 성장을 목표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교육·복지·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재원 배분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는 한편, 삭감되거나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신뢰받는 재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위원들은 재정 분석을 통해 건전성을 확보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하고 재구조화해 시민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세종시가 제출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 규모는 기정계획 2,727억원보다 190억원(6.99%) 증액한 2,917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를 원안가결했다.

제5대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첫 예산안 심사를 마친 박란희 위원장은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라며 “도시의 성장에 발맞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하고,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을 향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리특별위원회


박범종 위원장


강해정 부위원장


김동호 위원


김명숙 위원


김창연 위원


김학서 위원


김효숙 위원


유인호 위원


이순열 위원


이재준 위원



제5대 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7월 3일 제1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5대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박범종 의원(종촌동, 더불어민주당)이, 부위원장으로 강해정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선출되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회 운영과 건전한 의회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제5대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범종 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품격 있는 의회 문화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위원들과 함께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강해정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겠다”며, “서로 존중하는 의회 문화 조성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는 박범종 위원장, 강해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호 위원(집현동,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위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창연 위원(반곡동,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위원(어진동·나성동, 더불어민주당), 김학서 위원(연서면·전의면·전동면·소정면, 더불어민주당), 유인호 위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위원(도담동,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위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7년 6월 30일까지다.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돌입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8월 7일 의회 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 뒤 향후 활동 계획을 채택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란희 위원장과 김재형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했으며, 이어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가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개정 촉구를 비롯해 국회세종의사당의 신속한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세종지방법원 설치,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조속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현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결의안 및 건의안 채택,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정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집행부의 추진 상황과 예산 편성·집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란희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세종시의 숙원사업”이라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완전한 모습을 갖추는 데 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특별위원회는 주요 현안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박란희 위원장


김재형 부위원장


김동호 위원


김명숙 위원


김창연 위원


김현미 위원


박범종 위원


박병남 위원


유인호 위원


정연희 위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


강해정 부위원장


김재형 위원


김현미 위원


노종용 위원


박란희 위원


박병남 위원


윤성규 위원


이재준 위원


정연희 위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는 8월 25일 의회 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김효숙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강해정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대회 준비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경기·훈련시설 개보수와 세종선수촌 조성 공사 등 분야별 대회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회 이후 시설 활용을 위한 전략 마련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효숙 위원장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만큼 경기 및 지원시설이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대회 운영을 위한 충청권 4개 지자체의 예산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며 “특별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살피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대회 홍보가 아직 미흡하다”며 “집행부 주관 행사와 연계하는 등 시민이 대회 개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구성됐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제4대 의회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민 안전 위협하는 보도블록, 체계적인 관리 제도화 시급"



이순열 의원
도담동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은 보행친화도시 세종을 위한 보도 안전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도담동 먹자골목의 열악한 보도 환경을 꼬집으며, 세종시의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보도블록 파손 및 패임·보도 단차 등으로 인한 사고 접수 건수가 총 9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지침과 행복청 훈령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하여 시장 교체나 예산 상황에 따라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전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5년 단위 보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주민참여형 세종형 무장애(Barrier-Free) 보도 가이드라인 확립 ▲시공 책임 강화를 위한 보도공사 실명제 도입 ▲보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상가 주차장 진출입로 등 관리 주체가 모호한 구역은 관리가 쉬운 자재로 변경하는 등 신속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강조했다.

제4대 의회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청소년 사용키엔 비좁고 주말엔 문 닫는 보람종합복지센터, 전면 재구조화해야"



유인호 의원
보람동
더불어민주당

유인호 의원은 보람종합복지센터의 공간 불균형과 경직된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매월 2,500여 명의 청소년이 찾는 청소년자유공간은 턱없이 비좁은 반면, 같은 층의 유네스코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는 그 2배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보람장애인주간이용센터 역시 공간 부족으로 남녀 구분이 없는 목욕실을 사용하고 필수적인 심리안정실조차 마련하지 못해 추가 공간 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람종합복지센터는 관내 종합복지센터 중 최대 규모의 대관 공간(전체 연면적의 54%)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관 실적이 현저히 낮아 공간의 가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 의원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세 가지 정책 대안으로 ▲'수요자 맞춤형' 공간 재구조화 ▲'이용자 중심' 운영 방식으로의 전면 전환 ▲지역 주민 '체감형 운영 활성화 방안' 실천을 제안했다.

제4대 의회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4기 재정 절벽 지적 및 시정 5기 정상화 과제 제시



이현정 의원(前)
고운동
더불어민주당

제4대 의회 이현정 의원은 "새롭게 출범하는 시정 5기 세종시가 마주해야 할 현실은 시정 4기가 남겨놓은 혹독한 재정 위기"라며, 철저한 재정 진단과 민생 중심의 재정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의회가 비현실적인 세입 추계와 엉터리 예산 편성의 위험성을 누차 경고했음에도, 집행부는 들어올 돈은 부풀리고 나가야 할 법정 필수경비는 고의로 축소·누락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시민의 생계와 직결된 복지 예산이 가장 먼저 삭감된 점을 꼬집었고, 산하기관의 전기료·수도료 등 필수경비를 8개월분만 편성해 임금 체불 위험을 다음 시정부로 떠넘기는 쪼개기 예산 행태와 꼼수 채무 전가 방식도 폭로했다.

이에 이현정 의원은 새로 출범할 시정 5기를 향해 실패 원인의 철저한 진단과 정상화 노력을 주문하며 ▲재정 상황의 투명한 공개 ▲선심성 사업 예산 삭감 및 민생 예산 사수를 제안했다.

제5대 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의 국가 책임 촉구



김재형 의원
고운동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건립비의 국비·지방비 50% 분담 구조를 지적하며, 국가 책임 원칙에 맞는 재검토와 세종시 재정 부담 완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행복청이 행복도시 내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지원센터 등을 국비로 건립한 뒤 세종시에 무상양여했으나, 2023년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이후에 건립되는 공공건축물 건립비의 50%를 세종시가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수도의 도시 기능을 완성하는 필수 공공건축물의 건립 단계부터 비용의 절반을 세종시에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방재정으로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에 ▲공공건축물 건립비 재정분담 구조의 원점 재검토 ▲현행 법령의 취지에 맞는 국가 책임 원칙 재정립 ▲필수 공공건축물의 국비 부담률 상향 또는 지방비 보전·경감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5대 의회·5기 시정, ‘도덕성·투명성·합리성’으로 시민 신뢰 얻어야”



김현미 의원
소담동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제5대 의회와 제5기 시정이 시민에게 신뢰받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도 세종시 예산안 중 의무지출은 약 72%에 달했으나, 재량지출은 약 28%에 불과해 시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보여주기식 성과보다 시민 생활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민생 사업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주요 예산과 정책은 반드시 공개된 회의장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제5대 세종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3대 핵심 원칙으로 ▲도덕성 ▲투명성 ▲합리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제5기 시정과 제5대 의회가 도덕성·투명성·합리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축 재정 속에서도 사회적 가치 지켜야…” 공공구매 혁신 제안



박란희 의원
다정동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의원은 민선 5기 세종시의 재정 혁신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기업을 위한 ‘가치 소비’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공공구매 체계 혁신안’을 강력히 제안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세종시 공공조달 시장의 문제점으로 ▲일부 업체의 수의계약 독점 및 명의만 빌린 ‘위장 약자기업’의 혜택 편취 ▲감사 부담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일반 경쟁입찰’ 선호 현상 ▲소모품 납품 등 과거 저부가가치 업종에만 머물러 있는 조달 참여의 경직성을 꼽았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의 신규 상품 발굴과 조달 업종 다양화를 위한 유관부서 간 능동적 행정 지원체계 및 맞춤형 컨설팅 구축 ▲‘발주 전 관내 기업 우선구매 사전검토제’의 실효성 있는 의무화 및 자체 시스템(따사누리 등) 연계 ▲사회적 영세 기업의 조달 참여를 위해 대규모 용역을 권역별·기능별로 발주하는 ‘용역 분할 발주 지침’ 수립 ▲평가 지표 내 ‘세종시 실제 고용률’ 조항 정밀 배치 등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세종시 버스 안전 체계 근본적 개혁 시급”



이순열 의원
도담동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버스 안전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전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두 달간 도심 한복판에서 잇따른 사고를 언급하며 세종시 버스 안전 체계 작동 여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시 차원의 신속한 대응도 미비했고, 세종도시교통공사 또한 보상금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가입한 버스 공제의 대물 보상한도가 총 1억원에 불과한 점 ▲세종시 자체 버스공제조합 지부 없이 충남지역 공제 체계에 의존하고 있어 보상한도 등 주요 의사결정에 준조합원인 공사가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를 현 상황의 주요 원인으로 짚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도담동 B2 버스 사고 보상 절차 조속 마무리 ▲공사 대물 공제 한도 1억원의 적정성 검토 및 공제 보장 수준 개선 ▲버스공제조합 세종지부 설치 적극 검토 ▲시 소관부서 버스 안전 분야 인력 보강 및 본청 중심의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 4대 방안을 제언했다.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예산 외면, 예산 미편성으로 국비 반납 위기…”



김현미 의원
소담동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전면적인 예산 투입과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에는 PET-CT 등 정밀 진단에 필수적인 핵심 의료기기가 없거나 노후화한 상황이다. 중증 환자들은 대전이나 수도권 등 타 지역에 원정 진료를 떠나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시는 재정 여건을 핑계로 이번 추경예산에 39억원 규모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 장비 지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어 타 지자체와의 소아전문응급의료 지원 격차도 지적하며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이 극심한 인력난과 과중 노동 속에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공공의료체계의 개혁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필수의료기기 구비 및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국비 반납 방지를 위한 예산 편성 ▲의료진 보호를 위한 행정지원 체계 마련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활용한 의료진 인센티브 예산 확보 ▲ 권역모자의료센터 격상 추진 등을 제시했다.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세종교육의 더 큰 도약 위한 정책 제언



유인호 의원
보람동
더불어민주당

유인호 의원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가 공교육의 변화를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유 의원은 "지난 12년간 세종교육은 학생 맞춤형 교육, 학교자치 확대, 교육복지 강화 등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교육도시를 지향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세종교육은 그동안의 성과를 이어가는 데 그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이라는 비전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신뢰받는 공교육을 만들어 교육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세종교육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맞춤형 교육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확립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 속에서의 정책 추진이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청렴 문 답

익숙한 업무 환경 속에서 공직자는 언제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의 경계선에 서 있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를 점검하는 시간, 단 3분으로 삿된 유혹을 탈피하고
공직의 품위를 지킬 선을 정비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그은 선이 당신의 10년, 20년을 지킵니다!



Q. A사무관은 직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최근 외부 강의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나간 나머지 사전 신고를 누락했는데요, 이를 미리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A사무관이 해야 할 올바른 대처는 무엇일까요?

1. 외부강의는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언제 신고해도 상관없다.
2.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3. 강의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정답은? ②번! '사전 신고가 원칙이지만 상세 내용을 미리 몰랐던 경우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입니다.

해 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한 강의, 신고를 늦추지 않아야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죠?



Q. **직원 단합 차 전체 체육대회를 여는 날, 행사 책임자 B주무관은 평소 팜플릿 제작 업무로 자주 왕래하던 관내 인쇄업체에 연락합니다. "사장님~ 오늘 우리 직원들 체육대회를 하는 데, 에이~ 그냥 음료수만 좀 쏴 주시죠?!" 30만원 치 마실 거리 정도만 찬조해달라는 B주무관의 요청, 괜찮을까요?**



❶ 이런 것도 일머리다. 30만원 정도의 소액은 아무 문제 없다.

❷ 향후 업체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필요한 부분이다.

❸ 금품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도 안 된다.

정답은? ❸번! '금품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도 안 된다'입니다.

해 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항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관계성에 호소하며 이루어지는 요구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부정부패라는 길로 접어드니, 주의해야겠습니다.

Q. **드디어 고대하던 황금 휴가! C과장은 강원도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가 전날, C과장의 차가 고장나 수리를 맡겨야만 했는데요, 이에 C과장은 오랫동안 운행되지 않던 관용 차량을 몰고 본인 카드로 주유한 뒤, 여행을 다녀오기로 합니다. 이 행위는 처벌 대상일까요?**



❶ 부당한 공공기관 물품 사용으로 징계 및 환수 대상이 된다.

❷ 기름을 본인 돈으로 넣었으니 부당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❸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차다. 운행 시 점검까지 가능한 부분이니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다.

정답은? ❶번! '부당한 공공기관 물품 사용으로 징계 및 환수 대상이 된다'입니다.

해 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에 따라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단, 긴급한 구조 상황 및 환자 이송 등 사회상규로 비추어 보았을 때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입니다.

세종에서 놀자, 쉬자

억새와 낙엽을 보면 스치는 마음 하나도 시詩로 내려앉는 지금,
주황빛 향취와 단풍 물결을 한층 더 낭만적으로 만들
가을 전주곡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모든 공연은 예매 필요



국립오페라단 킨더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오페라단의 가족형 킨더오페라,
거장 로시니의 희극 오페라를 세종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2026년 10월 8일, 14:00/17:00
세종문화예술회관 7세 이상
전석 무료

아트하우스17 내한공연

고古음악의 아방가르드,
시대악기로 펼쳐지는 오늘날의 바로크!



2026년 10월 14일, 19:30
세종예술의전당 8세 이상
R석 50,000원 S석 30,000원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 〈말러, 교향곡 4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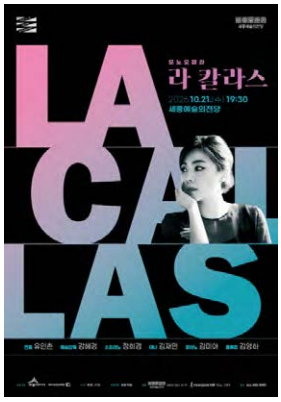
시대와 어법의 차이를 두고도
음악적 질서와 상상력은 선명하게 드러내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과 말러의 교향곡 4번.
두 곡을 통해 고전의 '균형'을 마주하고 '삶'을 바라봅니다.



- 2026년 10월 16일, 19:30
- 세종예술의전당 8세 이상
- R석 20,000원 S석 10,000원

모노오페라 〈라 칼라스〉

유인촌의 연출로 정통 클래식 음악과 연극이
한 무대에서 만납니다.
마리아 칼라스의 대표 오페라 아리아 여덟 곡과 더불어
소프라노 정희경의 에피소드를 담아 펼치는 모노드라마!



- 2026년 10월 21일, 19:30
- 세종예술의전당 8세 이상
- 전석 20,000원



연극 〈강아지똥〉

어린이들에게 다정함과 함께
살아감의 의미를 전하는 공연!
국내 창작그림책
최초 100만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가 어린이 연극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 2026년 10월 31일, 11:00/14:00
- 세종예술의전당
- 36개월 이상
- 전석 19,000원

의정주요뉴스



세종시의회, 개원 초 '실무 중심' 연수로 의정 활동 전격 시동

2026. 7.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5대 의회 개원 직후 시의원의 의정 전문성을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국회의정연수원의 '찾아가는 지방의회 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해 추진됐으며, 제5대 의회 의원들의 실무 역량을 조기에 다져 향후 의정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제108회 임시회를 앞둔 시점에서 진행되어, 조례안 및 예·결산안 심사 기법 등 핵심 실무를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이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원별 의정 경험 등을 고려해 '개관 과정'과 '전문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했다. 기본기를 다지는 핵심 실무부터 깊이 있는 안건 심사 기법까지 맞춤형 단계별 교육을 제공해 연수의 효과성을 높였다.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 방문

2026. 7. 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소속 의원들과 함께 7월 9일 오전 9시 세종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 방문해 밤새 이어진 폭우로 인한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날 안 의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들로부터 밤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 하천 수위 상승, 시설물 피해 등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산사태 취약지 등에 대한 대응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안신일 의장은 "밤새 현장에서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남은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후속 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의장 초청해 의정 발전 방향성 및 지역 현안 논의

2026. 7. 28.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7월 28일, 역대 의장을 초청해 지역 현안과 의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선배 의장들의 의정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과 의회 발전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유환준 초대 의장을 비롯해, 고준일(제2대 후반기), 서금택(제3대 전반기), 상병헌(제4대 전반기), 이순열(제4대 전반기), 임채성(제4대 후반기) 등 역대 의장들이 참석했다.

역대 의장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다"며,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전문성까지 두루 갖춘 생산적인 의회가 되어달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안신일 의장은 "지금의 세종시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심이자 시민의 대변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역대 의장님들께서 헌신적으로 기틀을 다져주신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세종시의회 '제5기 의정모니터' 출범

2026. 7. 29.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7월 29일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5기 의정모니터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안신일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새롭게 선발된 제5기 의정모니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위촉식과 2부 오리엔테이션, 분과별 토론 및 소통의 시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촉식에서는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선발된 시민 4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의정모니터의 역할과 활동 방향, 운영계획 등을 안내했다. 이어 행정복지·경제문화·도시환경·교육안전 등 4개 분과별(각 10명) 만남을 통해 의정모니터들이 서로를 소개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모니터는 앞으로 2년간 시민의 입장에서 시·의정·교육행정 전반을 살피고, 생활 불편 사항과 지역 현안, 정책 및 제도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등 시민과 의회를 잇는 소통 창구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세종·호남 광역의회 연대…
국가균형발전·자치분권 공조 강화

2026. 7. 2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은 7월 29일 의회 3층 의장 집무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을 비롯한 방문단 일행을 접견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 간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 경기도의회 및 인천시의회 방문단 접견에 이은 연속적인 행보로, 수도권에 이어 호남권까지 아우르는 전국 단위의 자치분권 연대망을 더욱 견고히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 의회는 지속되는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위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인 「지방의회법」 제정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충청권과 호남권 광역의회가 더욱 강력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의장단, 시청·교육청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격려 방문

2026. 8. 1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단은 8월 19일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의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격려 방문에는 안신일 의장을 비롯해 유인호·김학서 부의장이 함께했다. 의장단은 각 기관 종합상황실의 훈련 진행 상황을 청취한 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국 단위 비상대비훈련인 을지연습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실시하며 올해는 지난 18일을 시작으로 21일까지 4일간 진행됐다.

안신일 의장은 “을지연습은 전시 비상대비계획을 검증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기관별 대응 역량과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훈련”이라며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관별 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특별시의회, ‘상호존중 가이드라인 인증 챌린지’ 전개

2026. 8. 25.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의원과 공무원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나섰다.

의회는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상호존중 가이드라인 인증 챌린지’를 추진했다.

이번 챌린지는 의회 내 구성원 간 상호 존중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확산시켜 보다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의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존중 가이드라인의 핵심 실천 과제는 첫 번째, 부당한 업무 지시를 철저히 근절하고, 두 번째, 공식 절차를 준수하며 충분한 제출 기한을 부여해 자료를 요구하며 세 번째, 올바른 존칭 사용으로 상호 인격적 존중의 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안신일 의장은 “존중은 건강한 소통의 시작이고, 의회 구성원 간 신뢰 구축은 결국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라며 “이번 인증 챌린지를 계기로 솔선수범하는 의정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 기대에 부응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범국민 결의대회 결의 다져

2026. 8. 31.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8월 31일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개최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대규모로 참석하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범국민대책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국회의원(강준현·김종민·황운하)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충청권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집결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세종시의회를 비롯해 전국 각 지역의 시도의장단* 이 함께 참석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가적 연대를 보여주었다.

* 충북: 이상식, 충남: 조철기, 대전: 조성칠, 경기: 남종섭, 서울: 임만균 의장

세종시의회에서는 안신일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40여 명이 현장에 동참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서 안 의장은 세종시의회를 대표해 연대사를 발표하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연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과 함께 제정 결의 및 공동행동 선언을 진행하고 구호 피켓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Legislative Information

입법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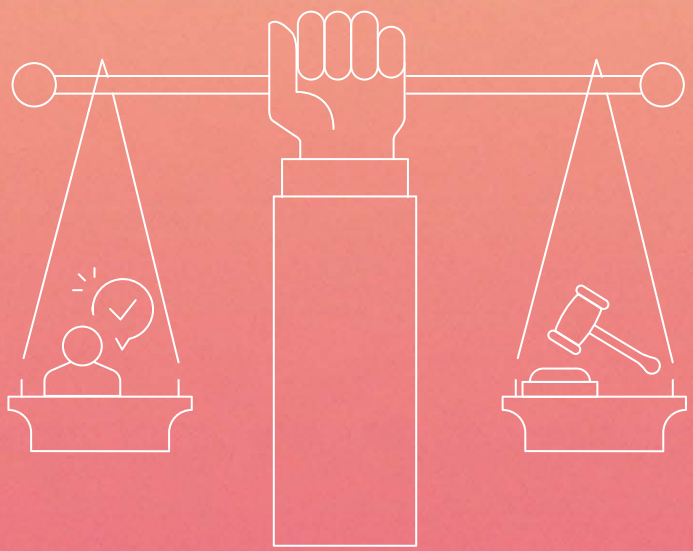
Ⅰ 생활법령 77

Ⅱ 주요입법동향 83

Ⅲ 법령해석사례 87

Ⅳ 최근시행법령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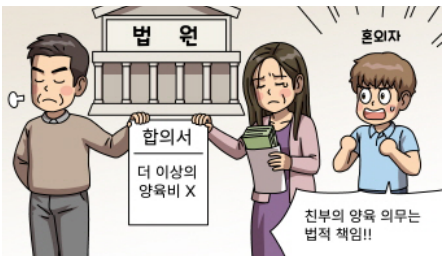
Ⅴ 타 지자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92



< 사례 01 >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친부모가 합의했더라도, 성인이 된 혼외자녀가 친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솔로몬의 재판)



A씨는 기혼 상태였던 친부 B씨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 출생자입니다. A씨가 태어났을 때, B씨는 A씨의 어머니와 양육비 지급 및 관계 정리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에는 B씨가 A씨를 보지 않는다는 조건과 일정 금액 지급 후 양육비 부담이 소멸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법원 소송 과정에서 A씨의 어머니는 B씨를 상대로 "A씨의 양육에 따른 일체의 부담을 주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조정 이후에도 A씨를 성년이 될 때까지 홀로 양육했습니다.

이 경우, A씨가 성년이 된 후 친부 B씨를 상대로 어머니가 홀로 부담했던 양육 기간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① 혼외자 A씨 :

과거 합의나 법원 조정과 상관없이 친부가 저를 양육해야 할 법적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홀로 부담한 양육비를 이제라도 돌려받아야 합니다.

② 친부 B씨 :

이미 친모와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마쳤고, 법원 조정으로 양육 부담을 일체 주지 않기로 확정되었는데 이제와서 추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건 부당합니다.

평결

정답은 1번.

혼외자 A씨 : 과거 합의나 법원 조정과 상관없이 친부가 저를 양육해야 할 법적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그 동안 어머니가 홀로 부담한 양육비를 이제라도 돌려받아야 합니다.

위 사례는 A씨의 양육비에 대한 친부모의 기존 합의나 법원 조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친부 B씨에게 과거 양육비 부담 의무가 여전히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참조).

(1) 이혼한 부부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생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의 양육비채권은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된 이후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자녀양육의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지판결 확정으로 법률상 부양의무가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양육자는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10. 31. 자 2023스643 결정 참조). 이는 혼인 외의 자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인지판결 확정 전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비록 혼인외의 자가 부모 일방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혼인 외의 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정도, 경제생활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모 일방의 부양만으로도 부모 쌍방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을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례에서 A씨는 어머니의 부양만으로도 부모 쌍방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지 않은 친부 B씨를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평결일 : 2026년 6월 1일
참조판례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례 02 >

한약사가 한약을 택배로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인가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솔로몬의 재판)



효과 좋은 다이어트용 한약으로 입소문이 난 한약사 '홍길동' 씨. 홍길동 씨는 직접 개발한 배합 비율에 따라 사람별 특성에 맞춰 다이어트를 돕는 한약을 지어 판매해 왔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 한약국에 방문했던 손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전에 먹었던 한약 효과가 너무 좋아서 똑같은 한약으로 다시 주문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홍길동 씨는 계좌로 대금을 받고, 이전에 지어준 것과 동일한 한약을 다시 만들어 손님에게 택배로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사는 홍길동 씨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입니다.이에 대해 홍길동 씨는 초진은 대면으로 상담했고, 동일 처방을 재주문한 것일 뿐이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 참고조문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검사 :

홍길동 씨의 이번 판매 행위는 한약국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주문을 받고, 당시 주문자의 신체 변화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며, 그 상태에 맞춘 한약 조제나 복약지도가 이뤄지지도 않았습니다.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았죠. 기존과 동일한 한약이라 하더라도, 이는 「약사법」 제50조제1항이 금지하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합니다.

② 홍길동 :

손님은 두 달 전 제 한약국에서 직접 대면 상담을 하고 한약을 구매한 분입니다. 그때도 동일한 한약을 처방했고,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주문은 그때와 내용물, 성분, 가격이 모두 같은 재주문일 뿐입니다. 초진 상담과 복약지도가 이미 한약국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한약 판매 행위 역시 한약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평결

정답은 1번.

검사 : 홍길동 씨의 이번 판매 행위는 한약국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주문을 받고, 당시 주문자의 신체 변화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며, 그 상태에 맞춘 한약 조제나 복약지도가 이뤄지지도 않았습니다.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았죠. 기존과 동일한 한약이라 하더라도, 이는 「약사법」 제50조제1항이 금지하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합니다.

위 사례는 의약품 판매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이 한약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함으로써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약사법」 제1조)을 실현하고, 충실한 복약지도 등을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약화(藥禍)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이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의약품에 속하는 한약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한약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하며,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5헌마373 결정,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바400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34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종합하면

① 홍길동 씨의 한약 판매 행위는 그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화로 이루어졌고, 그럼으로써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 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중간 과정 없이 피고인이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았으므로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홍길동 씨가 개설한 한약국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② 이는 주문자가 주문한 의약품이 한약이라거나,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홍길동 씨의 이와 같은 판매 행위는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에 관한 「약사법」 제50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번 판결은 「약사법」 제50조제1항이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의약품의 비대면 판매가 현재 시점에서는 「약사법」 제50조제1항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평결일 : 2026년 7월 1일
참조판례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9880 판결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Ⅱ 주요입법동향

01. 최근공포법령

0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포 '26. 8. 1.
대통령령 제36548호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1736호, 2026. 6. 2. 공포, 12. 3. 시행)됨에 따라, 난임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 중의 봉급·연봉 감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 해당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에 대해서도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2
미술진흥법 시행령

공포 '26. 7. 26.
대통령령 제36524호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술 서비스업에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술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568호, 2023. 7. 25. 공포, 2026. 7. 26. 시행)됨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폐업신고 및 영업 승계 절차와 미술 서비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포 '26. 7. 7.
법률 제21834호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피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피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자 등을 통해 재난의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02.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

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2026년 10월 2일로 시행이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개정하여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게 수사기관 및 공소기관 간의 권한 및 상호 관계 등 세부 절차적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요구권·재수사요구권을 정비하여 수사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및 피의자신문 녹음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수사기록 열람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의원 등 12인)

- 현행법은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여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받는 경우 그 공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공인이 취소된 기관이 재공인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의5).

03. 최근 국회 접수 법안

0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의원 등 10인)

- 현행법은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참여 확대, 성별에 따른 효과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학자금 및 주거 문제 등으로 사회진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등 청년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제고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02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 (용혜인 의원 등 15인)

-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견인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재임 기간 중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폭넓은 의정을 경험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음.
- 지방의원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산으로서, 의원직에서 퇴임하더라도 축적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공동체 회복,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야 함.
- 현재 퇴직한 지방공무원, 경찰, 교육, 소방, 군인, 교정 공무원 등 주요 공직퇴직자는 각 법률에 근거하여 단체를 설립·운영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음. 이에 반하여 퇴임한 지방의원들의 경우 사단법인으로 대한민국지방의정회를 조직하였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지방의정회'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를 제정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전직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04. 최근입법예고

0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의원 등 11인)

(의견제출 '26. 8. 12.까지)

- 현행법은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및 지방의회의원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 운영 등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임.
- 또한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받지 않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감시·견제해야 할 지방의원이 가족·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사실상 관여하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운영 등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및 광역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0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의원 등 15인)

(의견제출 '26. 8. 9.까지)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구로 인한 낮은 경제성과 열악한 지방재정 등으로 그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노인성 질환의 예방·치료 등을 위하여 그 지역의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사업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후단 신설).

Ⅲ 법령해석사례

질의(법제처-26-0412 / 회신일자 '26. 7. 21.)

①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에서 무인결제기계를 사용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담배자동판매기'로 보아 상대보호구역에 설치 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질의요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 교육감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서 절대보호구역이나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이 금지되나, 같은 조 단서 및 제18호에서는 상대보호구역에서 교육감 등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각주: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하 "무인판매점"이라 함)에서 무인결제기계를 사용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교육환경법 제9조제18호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로 보아 상대보호구역에 무인판매점 설치 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회 답

무인판매점에서 무인결제기계를 사용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교육환경법 제9조제18호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로 보아 상대보호구역에 무인판매점 설치 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유

• 먼저 '자동판매기'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상품을 자동적으로 파는 장치"(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의미하므로, 그 핵심은 상품의 판매가 판매자의 개입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 무인판매점은 일정한 점포 공간에 진열 또는 비치된 상품을 판매원의 개입 없이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제 또한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가 무인결제기계라는 기계장치를 통하여 하는 것이어서, 상품의 선택·결제·구입에 이르는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 의미의 자동판매기와 그 본질이 같습니다.

• 나아가 교육환경법 제9조제18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규제하는 취지는 담배 판매 과정에서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고(각주: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 등 참조) 청소년에게 판매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청소년의 담배 접근이 용이해지는 것을 차단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규제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판매자의 부존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결정적 표지라 할 수 있는데, 상품이 기계로부터 직접 인출되는지 아니면 소비자가 진열 또는 비치된 상품을 직접 선택한 후 무인결제기로 결제하는지는 상품 인출의 방식 차이일 뿐 그 표지를 좌우하는 요소라 보기 어려우므로, 상품이 자동으로 인출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무인판매점에서 무인결제기계를 사용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담배자동판매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그리고 교육환경법의 입법 취지 및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2025년 8월 14일 법률 제21009호로 교육환경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9조제18호에서 '담배'의 범위에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니코틴을 이용한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같은 법의 개정 이유에서는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고,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 등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학생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금지하려는 것임을 명시(각주: 2025. 8. 14. 법률 제21009호로 일부개정된 교육환경법 개정이유 참조)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교육환경법에서 무인판매점을 담배자동판매기의 한 형태로 전제하고 양자를 같은 규율 대상으로 보아 규제하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인바, 교육환경법 제9조제18호의 '담배자동판매기'에 무인판매점에서 무인결제기계를 사용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자동판매기를 통한 담배판매는 구입자가 누구인지 분별하는 것이 곤란하고 그 특성상 판매자와 대면하지 않는 익명성, 비노출성으로 인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담배구입을 용이하게 하여 청소년에 대한 흡연유발효과도 매우 큰데(각주: 헌법재판소 1995. 4. 20. 결정 92헌마264 결정례 참조), 무인판매점 또한 판매자와 대면하지 않는 익명성·비노출성을 가졌다

는 점에서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할 공익적 필요성은 전통적인 자동판매기와 동일합니다.

- 따라서 무인판매점에서 무인결제기계를 사용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교육환경법 제9조제18호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로 보아 상대보호구역에 무인판매점 설치 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해석사례

Ⅳ 최근시행법령

0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26. 7. 29. 시행)

-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한국어 교육의 핵심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세종학당의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의 운영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가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문화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과 공공성 강화 및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0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26. 7. 29. 시행)

-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외에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어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바,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0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6. 7. 23. 시행)

-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2026년 미국산 소고기 관세 폐지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며,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바,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04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 '26. 7. 20. 시행)

- 최근 선거와 관련한 서류의 보관·관리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강화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등 선거 관계서류를 청사 관리여건상 보관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의 청사가 아닌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할 수 있음(제107조 제2항 신설).

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6. 7. 13. 시행)

- 구급차 등의 운행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출동 및 처치기록과 운행기록대장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운행기록대장을 조작·위조·변조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며, 구급차 운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구급차의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을 조작·위조·변조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구급차 등에서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인수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의사·간호사 등으로 확대하고,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 신청 또는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를 인상하고, 구급차에 구비해야 하는 의약품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26. 7. 7. 시행)

-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 내 보호 및 활용 대상인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정의를 신설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가치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Ⅴ 타 지자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01 대전광역시 중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 시행 '26. 8. 3.)

[제안이유]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의식 고취 및 물놀이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제5조)

나.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제9조)

02 울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시행 '26. 8. 3.)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남구의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여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정책실명제 대상에 관한 사항(제3조)

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제9조)

03 안동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시행 '26. 7. 31.)

[제안이유]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안동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작물 병해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제단 구성에 관한 사항(제4조)

나. 방제단 임무에 관한 사항(제6조)

0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26. 7. 29.)

[제안이유]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가 발생한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제4조)

나.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제10조)



세종시의회 2026년 하반기 회기 일정 안내

7월(임시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제헌절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제107회 임시회 : 7. 1. ~ 7. 3.
○ 제108회 임시회 : 7. 15. ~ 7. 30.

8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대체	18	19	20	21	22
23 30	24	25	26	27	28	29

9월(1차 정례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연휴	25 추석	26 연휴
27	28	29	30			

○ 제109회 임시회 : 9. 29. ~ 10. 30.(행정사무감사)

10월(1차 정례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대체	6	7	8	9 한글날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제109회 정례회 : 9. 29. ~ 10. 30.(행정사무감사)

11월(2차 정례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제110회 정례회 : 11. 11. ~ 12. 15.

12월(2차 정례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성탄절	26
27	28	29	30	31		

○ 제110회 정례회 : 11. 11. ~ 12. 15.

■ 본회의 예정일 ■ 위원회 예정일
※ 기본일정은 의정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 미디어 채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온라인 미디어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가 생중계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각종 홍보영상 또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는 간편하고 빠르게 세종시의회 소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누리집
https://council.sejong.go.kr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jongcitycouncil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ouncilsejong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ejongcouncil

유튜브
https://www.youtube.com/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시민 필자 모집 안내

계간 『세종의정』에서는 역량이 뛰어난 시민 필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 포토에세이, 수필 등 어떤 형식이든 가능합니다.
시의회 방청이나 방문, 의정활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실 분,
세종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흥미롭게 서술해 주실 분,
가장 일상적인 시선으로 우리 동네 이야기를 새롭게 풀어내 주실 분 등
숨은 작가님들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 ☑ **이메일 제출 시 한글 혹은 워드 파일로 작성 바랍니다.**
- ☑ **포토에세이 제출 시 사진 원본**(5MB 이상 고화질, 스마트폰 촬영 지양) **파일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 **선정된 분들께는 별도로 회신해 드립니다.**
- ☑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포토에세이 시 5매 내외)**입니다.**
- ☑ **적합한 원고가 없을 시 미선정되어 게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우편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층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소식지 담당자 앞
전화 044.300.7248 **팩스** 044.300.7219 **이메일** yjk78901@korea.kr

소식지 구독 신청

세종시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식지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시민께서는 아래 경로로 구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접속 https://council.sejong.go.kr/
↓
홍보관
↓
의회간행물
↓
의회소식지 구독 신청

인터넷방송 보러가기
counciltv.sejong.go.kr

QR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의회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